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별 분포 및 자기결정성과 부모진로지지의 차이

고홍윌†

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른 분포 실태를 분석한 후,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Holland의 진로정체감 개념이 실제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진로정체감이 개인의 내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 심리 내적 발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외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의미 있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과 부모진로지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 및 연구문제에 따라 876명 대학생의 유효응답 설문을 회수해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수준을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수준별 분포를 보면 진로정체감 수준 높은 집단 296명(33.7%), 중간 집단 266명(30.4%), 낮은 집단 305명(34.8%)이다. 진로정체감 수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순으로 자율성과 유능성에서 각각 차이를 나타냈고,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보다 관계성이 높았다.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진로지지에서는 정서적지지에서는 높음, 중간, 낮은 집단 순으로 차이가 있었고, 정보적지지와 대화적지지, 경험적지지에서는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보다 높았다.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경험적지지에서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지지에서는 세 집단 간에 모두 차이가 없었다. 진로정체감 수준으로 구분된 집단의 비율을 보면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34%이며,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이 약 66%이다. 특히 자기결정성 및 부모진로지지에서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성취한 집단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적, 외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서 집단 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접근을 고안해야 한다.

주제어 :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수준, 자기결정성, 부모진로지지

† 교신저자 : 고홍윌, 충남대학교, gaohy@cnu.ac.kr

본 연구는 「진로교육연구」에 발표한 논문의 원자료 일부를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초기 대학생활경험이 향후 전공일치도 및 직무·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홍일 황재원 이자명†

충남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 대학생활경험이 향후 전공일치도 및 직무·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고3 코호트의 2차(2005년), 8차(2011년), 12차 년도(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직초기에는 미래직업결정, 건강 변인이, 현재 시점에는 미래직업결정, 학과만족도가 전공 일치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만족도의 경우, 입직초기에는 건강, 대학만족도 변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현재시점에는 대학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장만족도는 입직초기에는 건강, 대학만족도로부터 유의하게 영향을 받은 반면, 현재시점에는 대학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쳤다. 넷째, 대학선택 자의여부와 학과선택 자의여부 변인은 전공일치도와 직무 및 직장만족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초기 대학생활경험 , 전공일치도 , 직무만족도 , 직장만족도

† 교신저자 : 이자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jmyi1012@knou.ac.kr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유지 경험 분석

이자명 이아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유지 요인 및 반응과 관련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졸 이상 고학력 기혼여성 중,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2세 이상인 30대 여성이면서 출산과 육아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2인과 경력이 단절된 3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진로장벽과 이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경력단절여성과 경력유지 여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진로장벽과 각 그룹 고유의 지각된 진로장벽, 장벽에 대응하는 공통반응과 개별반응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학력 기혼여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벽요인에는 구조적 요인(탁아문제,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적 요인(가족 내 어려움, 직장내 어려움, 대리 양육자와의 어려움), 개인적 요인(죄책감, 대리양육자에 대한 불만족, 정보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장벽 개별 요인으로는 유지 여성의 경우, 조직내 여성의 경력 지원 부족,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심리적, 육체적 요인이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비상시 지지체계 부족, 배우자나 대리 양육자, 자녀와의 관계,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있었다. 장벽에 대한 반응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타 양육자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 새로운 탁아기관이나 사람을 찾는 행동이 있었으며, 다중역할 인식 및 진로가치관, 진로적성 등의 인지적 반응, 죄책감, 스트레스, 동기 측면의 정서적 반응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행동적 반응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고학력 기혼여성, 경력단절, 경력유지, 진로장벽

† 교신저자 : 이아라, 경상대학교, dreammaker@gnu.ac.kr

특수 외국어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석우† 황석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진로개발센터

본 연구는 특수 외국어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1개 대학의 특수 외국어를 전공하는 1~4학년을 대상으로 345명의 자료를 수집했고,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첫째, 특수 외국어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장벽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순으로 영향관계가 있었다. 셋째,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교과 및 수업만족만 진로준비행동과 영향관계가 있었다. 넷째, 진로장벽,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특수 외국어 전공 대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 전공과목 개선 및 개발에 적용해서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요인인 진로장벽을 낮추고, 전공만족도를 높여 진로준비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특수 외국어, 진로장벽,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 교신저자 : 김석우,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wkim@pusan.ac.kr

초등학생 진로발달을 위한 창업체험교육의 활용: 진로구성주의를 중심으로

김영화

서울교육대학교

진로구성주의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에서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의 발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대응 방식 중 하나로 창업가정신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에 주목하였다. 국외의 경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업가정신 교육부터 성인기의 창업실전교육까지 다양한 대상과 목표를 아우르는 창업체험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창업가정신 역량 진단도구가 개발되고, 다양한 초·중고 창업체험 교육자료가 소개되는 등 창업체험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창업체험교육은 후기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창업가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정서를 형성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체험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기 진로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초등학생 대상의 창업체험교육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국내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로구성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초등학생 시기 진로발달 특성이 창업체험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초등 진로교육 연구와 실제의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초등진로, 진로발달, 진로구성주의, 창업가정신, 창업체험교육